

중앙교회 가정예배서

인도자 : 가족 대표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176장 다같이

1.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후렴〉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맘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2.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3. 주 예수님 맡겨 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 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 안식 얻겠네
4.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 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다니엘 8:3-14 인도자

- 3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 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 4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 5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 6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 곧 내가 본 바 강 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 7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리뜨리고 짓밟았으나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 8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 9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
더니
- 10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의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 11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재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 12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 13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 14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설 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인도자

기도(합심기도) 설교자/다같이

* 설교자의 대표기도 또는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 1)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나라와 개인이 회복하도록
- 2)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
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악인의 행동을 부러워하지 말라”

(다니엘 8:3-14)

바벨론 벨사살 왕 제3년에(BC550) 다시 환상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으나 환상은 엘람 지방 수산 성, 을래 강변에서 펼쳐진다. 앞으로 370년에 걸쳐 일어날 사건의 계시를 본 것이다.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의 “큰 신상” 꿈(단2:31-35), 벨사살 왕 원년에 본 다니엘의 환상(단7:2-14)과 전체적인 내용에서 다르지 않다. 다만 8장은 메대, 페르시아와 그리스 두 나라가 집중적으로 나온다. 왜 다시 보여주시는가? 우리 연약함 때문이다. 시대가 어렵기 때문이다. 아무리 다니엘이라도 거듭해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 ▶다니엘은 우선 강가에 선 두 뿔 가진 숫양을 보았다. 두 뿔은 메대와 페르시아를 의미하며, 권세에 있어서는 페르시아가 메대를 앞지르게 된다. 메대-페르시아는 전 세계에 걸쳐 강력한 통치권을 확립한다. 하지만 서방에서 한 숫염소가 나타나 아주 빠른 속도로 전 세계를 정복되 특별히 숫양 즉 메대-페르시아를 분노함으로 공격해서 무너뜨린다. 숫염소는 그리스 제국을 의미하며 두 눈 사이에 난 현저한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한다. 알렉산더가 이른 나이에 죽자 그리스 제국은 네 나라로 분열되어 네 명의 장군이 통치했다(이집트 지역:프톨레마이오스, 시리아:셀레우코스, 그리스:리시마코스, 마케도니아:카산드리아). 그리고 이제 초점은 시리아를 차지한 셀레우코스 왕국의 제8대 왕인 안디오쿠스4세 에피파네스(BC 175-164)에게 맞춰진다. 환상에서는 그의 성품과 활동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그의 권세는 하늘 군대에 미쳤고, 스스로 높아져서 별들을 떨어뜨렸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를 폐지하고 성소를 파괴하며 율법 두루마리를 찢었다. 특히 그의 행동의 특징은 “자의로 행하며 형통”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수천 명을 살육하고 유아들도 무차별 학살했으며 성소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제물로 바쳤다(BC167). ▶여기서 이런 의문점이 떠오른다.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은 형통하고 강해지는가? 악인의 형통, 악인의 고통이 당연한데, 도리어 악인은 고통받고 악인은 형통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나는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고통을 받고, 악한 자는 형통하다. 그래서 시험이 든다. 다니엘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이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으로다”(시73:2-3). 하지만 성경의 일관적인 메시지는 ‘형통했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한다. ▶거룩한 천사들끼리 묻고 답한다. ‘이런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8:13). 이에 대해 “2300주야” 즉 1150일이라는 답변이 나온다. 3년이 약간 넘게 지속된다는 의미다. 실제로 마카비 혁명으로 유대인들이 3년 만에 헬라인들을 몰아내고 하스몬 왕조를 세웠고 이때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해서 재봉헌했다. 이것이 수전절의 기원이다(BC165. 하누카 절기). 안티오쿠스는 악행을 저지르다 불치병으로 죽는다(BC164). 하나님 나라 외에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력은 없다. 악이 무너지는 것도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무너진다. 느부갓네살이 본 “돌”, 다니엘이 본 “인자”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하나님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신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위로와 소망을 얻고 인내하라. 지금 보는 것이 끝이 아니다. 악인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과 능력의 근거를 마련해 준다. ▶다니엘은 이 환상 때문에 혼절했고 수일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다. 종말을 보았다고 자신의 자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다. 일상적인 일로 복귀하였다. 다니엘은 자신의 시대에 악의 결말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도 몇 세대에 걸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힘들어도 살아야 한다.